

고문 장규호

오리업계가 달라지고 있다.

먼저 지난달 5.6월호가 합권 발간됨에 따라 한국오리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만섭 회장의 취임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린다.

돌이켜보면 지난 약 14년 동안 셋방살이만 하다 이제는 어엿한 제2축산회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취임한 것이니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.

초창기(1992년) 농장 한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.

아무튼 임기 동안 김회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겠지만, 열심히 잘 하리라 믿으면서 지면을 통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.

첫 번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. 못난 사람은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여 저지르며, 平凡(평범)한 사람은 한번 저지른 잘못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고, 非凡(비범)한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서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기에 한번은 잘못할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. 이를 위해서는 과거 일에 대해서 이를 反面教師(반면교사)로 삼아야 한다.

전임 김 회장의 재임 중 업적에 대해 좋은 점은 더욱 발전되도록 하여야 하고,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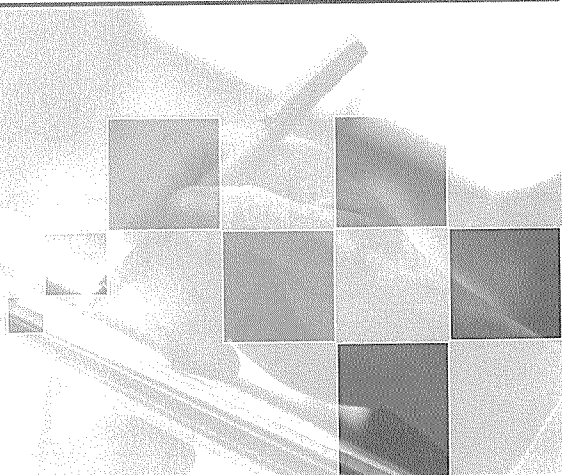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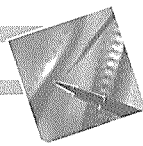
두 번째로 오리업계의 단합이다.

우리업계는 부화업종 회원과 계열화업종 회원, 유통업 회원, 사육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 어느 부분 하나도 소홀히 취급될 분야가 아니다. 부화→사육→계열·유통의 순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오리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에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계열업 회원과 부화업 회원간의 의견대립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느껴진다.

요즘 오리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 건 같은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이 영 아니올시다인 것이다.

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시 한마음으로 뭉쳐지려는지... 그렇다고 업계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다.

물론 이 상황에서 아쉬운 것도 없고, 우리는 부족하다 아우성이고 하니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(?)은 아닌지... 그러나 우리 모두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. 지금의 상황이 固着化(고착화)되면 좋을 것은 아무것도



도 없다. 회원들 간의 서로 양보와 합심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.

세 번째로 지금까지 오리업계는 계속 좋은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경기가 계속될 것 같다. 가장 큰 이유는 오리고기 선호도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 되는데,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A.I로 인한 엄청난 충격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 오리업계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당국의 홍보, 그리고 업계의 신제품 개발노력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.

언제 이 정도라도 매스컴에 오리가 등장한 것이 있었는가?

이럴 때 업계에서 조금만 힘을 모은다면 향후 10년 동안에 이를 성장을 단 1, 2년 만에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.

네 번째로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. 작은 부분의 일이라도 반복되는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. 각종 행사시 의전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써줌으로 성숙된 오리업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.

다섯 번째로 김만섭 회장은 오리업에 대해 전

문가이다. 그렇지만 협회의 회장으로서는 각종 업무 처리는 물론 회의시 의장으로서는 본인의 의견이 있더라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캐스팅보드를 가진 입장에서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역할을 당부한다. 그리고 축산연구소 등 외부기관에 오리 전문 연구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데 이들을 잘 활용하여 오리업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

이상 오리업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면서 김만섭 회장에게 몇 가지 고언을 드렸다.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. 재임 중 넘치는 열정으로 일해주시기 바라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을 때 정말 오리업계를 한층 더 발전시킨 좋은 회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, 다시 한번 8대 한국 오리협회 회장취임을 축하한다.

2006. 6. 19